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반복> ‘성격 만들기’다. ‘행위 만들기’다.

<반복> ‘만들기’와 ‘써먹기’다.

<반복> 완전히 만들어 놓았어도 써먹어야 된다. 써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반복> 최대한 빨리 만들고, 최대한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반복> 항상 주님과 마음을 맞춰서 번쩍이면서, 날면서, 뛰면서 쓰여져야 된다.

<반복> 주님의 육이 되어서 주님의 정신과 마음과 주님의 몸으로 쓰여져야 된다.

1. 행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니 마음과 생각이 자기 주관, 자기중심이 되어 행하지 않게 해야 된다.

2. 매시간 매 순간 확인하면서 행하기다.

3. 매분마다 시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몇 시 몇 분인지 모르듯이, 행하면서 예수님께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4. 예수님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마치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듯이 예수님께 확인하면서 행하여라. 대강 행하는 자는 시간을 대강 알고 행하는 자와 같다.

5. 주님의 계시나 주님의 말씀도 대강 받으면 대충 하게 되고, 할 일도 대강 행하면 대충 하게 된다.

6.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그 사람과 똑같이 그리듯이,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깨끗이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행하여라.

7. 화장실도 대충 대강 갔다 오면 또 가야 된다.

8. 자기 자신이 씻을 것을 안 씻어서 꼬깝함을 느끼듯, 자기가 대충 행하면 주님은 꼬깝함을 10배나 더 느끼신다.

9. ‘증거’도 확실히 배우고 증거하고, ‘행실’도 확실히 배우고 행하여라.

10. ‘온전함’을 철학으로 삼고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잘된다.

11. ‘사랑’을 온전히 하면, ‘미움’이 없는 것이다.

12. 주님은 온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하되 흠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이런 자를 사랑의 신부로 삼고 같이 행하시고 같이 사신다.

13.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도 점도 없이 행하신다. 고로 행하신 일마다 걸작품이다.

14. 몸부림쳐서라도 주님을 따라 하면, 자기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 대걸작품 인생 된다.

15.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하면 평생 해도 구원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못 된다.

16. 주님과 떨어진 자는 마치 물에서 나온 물고기와 같고, 땅에서 뽑힌 나무나 식물과 같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으면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고, 나무가 땅에서 뽑혔으면 빨리 다시 심어야 되듯이, 어서 빨리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한다.

17. 예수님을 ‘옷’이라 생각하고, 방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을 입어야 한다.

18. 더러운 때를 닦고 밀고 없앤 곳만 때가 없어지듯이, 더러운 죄를 말과 행실로 깨끗이 회개하여 없앤 것만 깨끗해진다.

19. 생활 승리, 인생 승리다.

20. 자기를 망치는 것은 첫째, 자신이요 / 둘째, 사탄이요 / 셋째, 타인이다.

21. 자기가 자기에게 영웅이요, 관리자요, 행할 자요, 성공시키는 주인이다.

22. 주님은 지시자요, 명령자이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돕기만 하시고, 도저히 못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 하게 해 주신다.

23.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타인이 해 주기를 바라고 주님이 해 주기를 바라느냐. 못된 성격과 못된 마음과 못된 버릇을 잡초같이 뽑아

없애라.

24. 행하는 것도 버릇되면 자꾸 해진다.

25. 안 하는 것이 버릇 들고 습관 들면, 쉽게 할 일도 태산같이 보인다.

26. 습관 되면 성격이 고정되어, 순간 하면 될 작은 일도 황소같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27. 일어나 행위의 빛을 받아라.

28. ‘천국’은 행하지 않음으로 구원의 주관권에 못 들어가서 못 가게 된다.

29. 부지런한 자가 먼 길을 가고, 천국도 간다.

30. 천국은 멀어서 인생 새벽부터 서둘러 가야 갈 수 있다.

31. 가다가 해 지면 낙원에 머무르게 된다. 선영계에 머무르게 된다.